

◆ 논단 ◆

녹용의 소비 유통에 관한 소고

이 정 록

옛말에 「동량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마라」라는 말이 있다. 도움은 주지 못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기를 이르는 말이다. 지난번 KBS 9시 뉴스에 방영된 호법농원의 백인범 사장님의 경우는 쪽박을 아예 박살을 낸 본보기였다. 비록 양록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경악을 금치 못하는 한심한 일이다.

법 제정의 원래 목적은 제재하기 위함이 아니다. 민생에 편익을 주기위한 질서의 정립이요 일종의 약속인 셈이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변화가는 세대에 맞추어 민생 법안도 부족함이 없도록 조속히 보완을 해야 한다. 통행수단이 우마차일때 제정한 법을 자동차가 범람하는 요즈음 세상에 적용하여, 더구나 제재하려드는 뒤떨어진 행정을 펴서는 안됨을 먼저 강조해 두고 싶다.

인삼과 녹용은 한방 보약중 최고봉으로서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널리 애용해 왔다. 다행스럽게도 인삼은 지금까지 생산과 함께 유통면에서도 종주국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녹용은 그렇지 못했다. 세계 유통량의 80% 이상을 수입해 오는 수입 종주국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결국 자타가 공

인하는 소비 종주국이 되고 만 셈이다.

애용은 하면서 생산에는 힘쓰지 않은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때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마땅히 잘못된 점을 고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생산은 미약했지만 유통에서까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은 깊이 반성할 일이 아닌가 한다.

녹용의 주 유통 경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약방이다. 오랫동안 수입에 의존했다고 해서 수입 녹용은 한약방에서 버젓이 주인 행세를 하고 국산 녹용은 문전 추방을 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국 양록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수입 녹용은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만 갈 것이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녹용을 하루속히 국산 녹용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참으로 한심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주객이 바뀌어도 유분수지 우리나라 녹용이 겨우 수입녹용 대체품이었던 말인가? 애시당초부터 수입 녹용이 한방 보약으로 자리를 잡았다면 마땅히 수입 녹용이 주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수 강산에서 자생한 사슴에서 채취한 녹용이 원조인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이제와서 수입 녹용을 주

인이라고 섬기는 것은 망국병에 버금가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녹용 유통을 떠맡고 있는 한약업계 한 모퉁이에서는 수입 녹용은 자연산 원짜 녹용이고 국산 녹용은 양생이라고 둘러부쳐서 마치 인삼과 산삼의 차이만큼 소비자를 현혹시켜 우롱하고 있다. 우롱을 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녹용 성장 과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자연산 녹용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을 금방 알 것이다. 이제 「워싱턴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자연산 녹각마저 수입 할 수가 없는데 그때는 또 어떤 얼토당토 않는 것을 둘러부쳐 소비자를 현혹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와 기후 풍토가 비슷한 중국에서 수입한 고사리와 더덕을 자국산과 비교한다면 얼마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것인가? 중국에서 수입한 고사리와 더덕을 원짜라고 섬기고 싶은 마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기후 풍토가 엉뚱한 곳에서 더구나 녹육 위주의 사슴에서 채취한 녹용을 언제까지 원짜라고 떠받칠 것인가?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의 치하에서 굴욕적인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주권을 회복하여 세계의 열강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녹용도 주권 회복을 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다. 녹용의 주권 회복 없이는 양록의 발전은 있을 수가 없다. 주권을 회복하려면 녹용 소비 유통에

혁신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녹용소비 유통 체제가 정립되지 않으면 녹용 수입 종주국의 오명을 영영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국산 녹용은 그동안 일제 치하에서 독립 운동을 하듯 아름답게 법의 제재를 피해가며 문전 걸식을 하여 왔다. 그런가 하면 수입 녹용은 주 소비처인 한약방에서 안방 차지를 한체 유유자적하게 유통되어 왔다. 춥고 배고픔에 시달려 폐업을 하는 양록 농가가 속출하는가 하면 수입 녹용은 매년 거드럼만 늘어갔다. 이런 현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권 회복을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우리나라 양록도 주권 회복을 할만큼 성장해왔다.

「봉대신 평」이라고 꼭 필요하면 불가불 비슷한 것으로 대치 할 수는 있다. 대치란 임시변통이지 영원의 뜻은 아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평을 봉이라고 잘못 알고 살아왔다. 한약업계에서는 언제까지 평을 봉이라고 우겨나갈 것인가?

주권을 잃은 것이, 또는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순전히 한약업계의 책임이라고 몰아부치고 싶지는 않다. 성인도 시대를 따르라고 그런 시대를 살아보면 그 시대의 시루에 역행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양록단체와 한약업계 그리고 행정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주권을 되찾는데 심혈을 기울이기를 진심으로 호소하는 바이다. ☆